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안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길을 헤매며
죄의 포로되었던 우리가 돌아갈
자유의 길이 있네.

말씀 안에 크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네.
높고 높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비천하고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의 겸손을 보네.

흠 없으신 정결한 몸
모욕과 굴욕의 십자가에 찢기셨네.
주홍빛 같은 우리 죄 용서하시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네.
희생의 사랑을 배우네.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까지
그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리라.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모든 족속이 네게 나아오리.
그분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들으려
목마르고 허기진 백성들,
시온산으로 구름같이 몰려오리.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간힌 자들이 참자유를 얻고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

우리,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사랑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리라.
진리의 말씀, 만백성에 전파하리라.

5. Okt. 2013
Hanna Ryu